의상 '일승발원문' 全文 발견

장충식 교수, 나옹계첩 게송서 전반부 28수 또 찾아

8일 '해인사 복장유물' 세미나서 발표

의상스님(675~702)의 저술로 알려진 〈의상화상일승발원문〉(義相和尙一乘發願文) 전문(全文) 48수가 최근 장충식 교수(동국대 고고미술사)에 의해 확인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지금까지 의상의 〈일승발원문〉은 장교수에 의해 20수만 확인됐었는데 이번에 28수를 새롭게 발견, 전문 48수가 밝혀진 것.

우리나라 최고 고승중 한 분인 의상스님의 현전 저술이 〈십문간법관〉〈입법계품초기〉〈소아미타의기〉〈화엄일승법계도〉〈백화도량발원문〉 등 5종에 불과한 점으로 볼 때 이번에 발굴된 〈일승발원문〉은 의상스님의 화엄사상과 종교관을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장교수는 "해인사 비로자나불 복장유물인 지공화상의 각경계첩을 연구하기 위해 나옹계첩(권상로 박사가 〈불교〉지 5호에 소개, 1924년)과 비교-연구하던 중 나옹계첩 뒷면 발원문 안의 28수 게송이 〈금자화엄경〉(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의상화상일승발원문'과 연이어진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래된 나옹계첩은 1327년 지공스님이 내린 계첩으로 절첩(折帖, 9.6×6.6㎝) 형식.

장교수는 "지난 82년 〈금자화엄경〉에서 '의상화상일승발원문'을 발견할 당시 발원문의 전반부에 당연히 있어야 할 불보살에 귀의하겠다는 귀경문(歸敬文)을 찾을 수 없어 기이하게 생각했다"며 "나옹계첩의 발원문 28수 게송은 〈금자화엄경〉의 '일승발원문'과 형식이 같은 칠언절구(七言節句)로 삼보에 대한 귀경례(歸敬禮)를 표할 뿐만 아니라 두 발원문 모두 화엄의 도리에 입각한 발원을 서원하는 등 동일인의 문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장교수는 "나옹계첩에서 〈무생계경〉 사경 뿐 아니라 의상의 〈일승발원문〉을 필사한 것은 고려불교의 수행자세를 알게 해주고 의상의 화엄학과 종교관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며 "〈일승발원문〉의 완벽한 전문은 확인됐으나 〈조선고적도보〉에 실려있는 나옹계첩의 행방을 찾아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장충식교수의 논문 '해인사 금자무생계법과 의상의 일승발원문'은 8일 동국대에서 '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 복장유물 고찰'제의 세미나에서 발표된다.

성보문화재연구원(원장 범하) 주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이외에도 홍윤식교수(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장)가 '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 복장품의 역사적 의미' 허흥식교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가 '불복장과 각경계첩의 봉안배경' 권영숙교수(부산대 의류학과)가 '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과 고려후기 의복의 특성' 등을 각각 발표하고 정영호 유희경 김상현 채상식 김길웅 김형우씨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오종욱 기자

〈의상화상일승발원문 전문 48수〉

새로 발견 28수

稽首歸依恒沙佛 頂禮圓滿契經海
歸依一切諸賢聖 願賜慈光爲證明
無始以來至今身 由貪嗔癡動三業
知不知作及自作 教他人作見聞隨
所造十惡五無間 八萬四千恒沙罪
於三寶前盡懺悔 願令除滅諸業障
願我臨終無苦難 面見彌陀生極樂
成就普賢廣大行 盡未來際度衆生
普願法界諸衆生 永除煩惱所持障
勤修十佛普賢境 衆生界盡總成佛
惟願生生世世處 不墮三途八難中
願同善財發大心 願比文殊甚深智
願得觀音大慈悲 願修普賢廣大行
願證舍那大覺果 願度法界諸衆生

82년 발견 20수

惟願世世生生處 三種世間爲三業
化作無量供養具 充滿十方諸世界
頂禮供養諸三寶 及施六道一切類
如一念塵作佛事 一切念塵亦如是
諸惡一斷一切斷 諸善一成一切成
値遇塵數善知識 慶受法門無厭足
如善知識發大心 我及衆生無不發
如善知識修大行 我及衆生無不修
具足廣大普賢行 往生華藏蓮花界
親見毘盧遮那佛 自他一時成佛道

학술단신

7회 가산학술상 공모 30일까지 논문등 마감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산)이 제7회 가산학술상을 공모한다.

지원대상은 불교학 및 관련분야 연구를 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발표 논문·미발표 논문초록·중장기 연구계획서·추천서 등을 오는 5월30일까지 제출해 응모할 수 있다.

이번 학술상의 수상자는 연구비 지원은 물론 각종 학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받으며 가산불교문화硏의 '전문연구위원'과 '불교대사전편찬 및 학보편집위원' 등으로 위촉된다. (02)765-9602

'생태주의와…' 강좌개설 불교환경연구원,8일부터

한국불교환경교육원(원장 법륜)이 5월8일부터 매주 목요일(7시30분) '생태주의와 에코페미니즘' 강좌를 개설한다.

이번 강좌에는 정유성교수(서강대)가 '인간해방을 위한 남성학과 신여성론' 정순영씨(한국여성개발원)가 '국제 여성운동의 동향과 과제' 정순영씨(한국여성개발원)가 '환경위기시대의 여성의 역할과 참여' 등을 주제로 강의하는 것을 비롯해 6월26일까지 8차례의 강좌가 개설된다.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은 7월3일 '에코페미니즘, 여성운동의 새로운 시각'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움도 개최할 예정이다.

(02)765-6324

불문硏 불교용어 英譯 표준안 마련

문체부 '국어 로마자 표기법'과 달라 혼용 우려

최근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권기종) 산하 번역위원회가 '불교용어 영역 규정'을 준비중인 가운데 문화체육부와 국립국어연구원이 '국어 로마자 표기법' 개정안을 최근 확정하고 올해 8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밝혀 불교용어의 영역화에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불교의 세계화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불교문화硏은 지난 22일 권기종교수(동국대) 테데스코교수(세종대) 김용표 연구원(불교문화硏) 등 10여명이 참여한 회의에서 미국인 발음에 근거한 '머큐 라이샤워 체계'를 기본 표기법으로 정하고 시대·지역·직책 등의 서술 방법도 구체적으로 밝힌 '영역 시안'을 마련했다.

◇불문硏 - 문체부 로마자 표기법 차이

예	불문硏 영역 시안	문체부 국어-로마자 개정 표기법
원 효	Wŏnhyo	Wenhyo(Weonhyo)
대 웅 전	Taeungŏn	Daiwungjen(Daiwungjeon)
선 불 교	Sŏn Buddhism	Sen Buddhism(Seon)
스 님	Sulim	Sunim
유 점 사	Yujŏmsa	Ujemsa(Ujeomsa)
무량수전	Muryangsujŏn	Muryangsujen(Mulyangsujeon)
극 락 전	Kungnakchŏn	Guglagjen(Gugragjeon)
다 보 탑	Tabot'ap	Dabotop
석 굴 암	Sŏkkuram	Seggwuram(Seoggwulam)

※ ( )는 '개정 공청회'에서 논의될 제2안

그러나 문체부와 국립국어연구원이 최근 개정-공개한 '국어 로마자 표기법'은 한글 맞춤법 원칙에 따라 영문화한 전자법(轉字法)을 채택해 불교문화硏의 '영역 시안'과 표기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두 표기법의 상이점은 특히 'ㄱ·ㄷ·ㅂ·ㅈ'의 자음과 'ㅓ·ㅜ·ㅡ'의 모음에서 찾을 수 있다. '머큐 라이샤워' 방법은 'ㄱ·ㄷ·ㅂ·ㅈ'를 'k·t·p·ch'로 쓰는 반면 개정안은 'g·d·b·j'로 표기하고, 또 '머큐 라이샤워'가 'ㅓ·ㅜ·ㅡ'를 'ŏ·u·ŭ'로 표기하지만 개정안은 'e·wu·u'로 규정하고 있다.

국립국어연구원 김세중박사는 "머큐 라이샤워 표기법은 반달점 등의 특수부호를 사용해 출판이 까다롭고 국어의 현실음을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어를 제외한 기타 언어권 외국인은 발음하기 조차 힘들다"며 "행정구역·도로표지판·문화재명·해외출판물 등에 우선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불교문화硏는 "영역 시안을 보완해야겠지만 '머큐 라이샤워'를 기본 표기법으로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영역-발간될 불교관련 출판물의 불교용어와 불교문화재명(名) 등이 어느 규정을 따르느냐에 따라 '국어 로마자 표기법'이 상이해 한국불교의 학술·포교 등에서 영역 표기상의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욱〉

나와 경전 6

금강경

심 재 열
〈원효사상연구소장〉

'범소유상(凡所有相) 개시허망(皆是虛妄)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즉견여래(卽見如來)'

모든 것은 허망하느니, 만약 모든 형상이 진실상이 아님을 보면 그 즉시 여래를 보리라는 뜻의 이 사구게는 〈금강경〉의 핵심이다.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이치를 깨닫는 것이 바로 성불의 길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알고, 집착하고 번뇌한다. 〈금강경〉은 우리중생의 이러한 고통의 원인을 바로 보고 '나'자신의 참 모습을 찾아가라는 가르침을 전한다. 그래서 나는 항상 이 사구게를 암송하며 또 다른 이들에게도 금강경 사구게를 수지 암송하도록 늘 권유하고 있다.

〈금강경〉은 한국불교의 상징이고 경전중의 경전이다. 대승불교권에 있어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불자가 불문에 처음 들어가는데 의지하는 경전가운데 하나가 바로 〈금강경〉이다.

한국의 불자라면 누구나 금강경을 제일의 경으로 신봉하지 않는 이가 없을 정도다.

나 또한 오래전 청담스님에게서 〈금강경〉 강좌를 세 번이나 공부했다. 또 이종익박사에게 〈금강경오가해〉를 수강하기도 했고, 천태대사의 〈금강반야경소〉를 열심히 공부하기도 했다.

〈금강경〉은 〈금강반야바라밀다경(金剛般若波羅蜜經)〉의 약칭으로 〈금강반야경〉이라고도 한다. 이 경은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에 부처님의 십대제자 가운데 해공(解空)제일이라고 불리운 수보리가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낼 적에 그 마음을 어떻게 간직하고, 항복받을 수 있겠느냐는 물음에 대해 설한 것으로 〈고려대장경〉 권 5에 수록되어 있다. 대승경전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경전인 〈금강경〉은 원시불교의 연기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반야경〉의 핵심이 되는 공사상이 그 주축이 되어있다.

구마라십 삼장이래 선종 교종을 통틀어 범종파적으로 〈금강경〉이 경전 가운데 제일 많이 독송, 연구된 이유도 이런 점에 있다 할 것이다.

〈금강경〉은 한국불교 선종계통에서는 보조스님 이후 조계종의 지도이념으로까지 등장했으며 보조스님의 제자 진각국사는 '제불의 아뇩다라삼먁삼보리법이 모두 〈금강경〉에서 나왔다'고 〈진각집(眞覺集)〉에서 설하고 있기도 하다. 선종과 〈금강경〉은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6조 혜능대사가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應無所住 而生其心)'는 〈금강경〉 사구게를 듣고 그 자리에서 깨달아 5조 홍인대사로부터 〈금강경〉을 통한 전법인가를 받은 이래, 〈금강경〉은 선종의 소의경전(所依經典)이 되었다.

고려조 제일의 선지식으로 천태종을 개립(開立)한 의천 대각국사는 원효선사의 금강경소를 읽고서야 비로소 〈금강경〉의 깊고 바른 뜻을 깨우쳤음을 다음과 같이 찬탄했다.

"뜻으로 한 말씀 글이 아니기에 불심에 개합하나니, 분황(元曉)의 경문 관석이 홀로 이를 감당하셨네. 불심을 몰라 외로웠던 나의 다생 어두운 밤과 같더니, 오늘 원효소 만남이여, 하늘에서 바늘 던져 겨자씨 맞힘과 같아라"

무학(無學)대사의 상수제자인 함허득통화상은 선과 교를 함께 정통한 조선조의 마지막 선지식으로 유명한 〈오가해설의〉를 저술했다.

"모든 형상 진실아님보면 여래보리라"

사구게 늘 암송…깊은 뜻 수행지침

이 설의는 금강경과 그 오가해의 오묘한 경지를 남김없이 밝혀 놓았을 뿐 아니라 한차원 높은 교리체계를 실어 줌으로 많은 〈금강경〉 주석서 가운데 금자탑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일찍이 나는 배운 것을 토대로 금강경에 관한 책을 한권 간행해야 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다. 그래서 아침저녁 지성으로 기도를 하면서 책 간행에 힘썼는데,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불가사의한 힘을 얻어 내가 하고자 했던 바를 성취한 적이 있었다.

〈금강경〉과 관련한 수많은 영험담 가운데 〈금강경〉 독송으로 생명을 연장한 이야기가 있다. 중국 당나라시대 반야원의 수도승이었던 법정이라는 스님은 하루 37번씩 〈금강경〉을 읽었다. 스님은 나이 60세에 이르러 죽어가면서도 지성으로 〈금강경〉을 독송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감동한 염라대왕이 스님에게 30년 더 수행하고 중생을 교화한 뒤에 오라며 이승으로 다시 보내주는 특전을 받아 스님은 죽음에서 다시 깨어나 〈금강경〉을 더욱 열심히 독송하고 중생포교에 힘쓰다가 30년 후인 90세에 입적했다고 한다.

오늘날 〈금강경〉을 매일 독송하는 불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니 반갑다.

"求道의 길"

雲水日記는 日本의 한젊은 僧侶가 人生一代의 큰 뜻을 품고 求道의 길을 떠나는 데서부터 출발, 修道過程을 그림을 곁들여 가며 재미있게 日記式으로 소개한 것이다.

저자 佐藤 義英
平田 精耕
加藤 隆芳
역자 釋 圓 然

정가 6,000원

도서출판 대흥기획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18
TEL : 738-6270, 735-7202
FAX : 733-1016

「불자의 집」 교패붙이기 운동을 전개합시다

▲ 크기 : 6cm×7.5cm

특 징
1. 원색칼라로 제작하였습니다.
2. 표면에 에폭시 처리하여 탈색의 염려가 없습니다.
3. 반영구적입니다.
※ 300개 이상 제작시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2천만 불자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2천만의 불자 모두가 스스로 불자임을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스스로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불자로서의 긍지를 갖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불자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자부심은 나와 이웃이 더불어 사는 이 세상을 부처님 세상으로 가꾸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 감로기획에서는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의 후원으로 「불자의 집」 교패 붙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운동은 불자 스스로가 자긍심을 갖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앞장 서겠다는 서원의 실현이기도 합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차량용도 있습니다.(유리후면에 부착)

▲ 크기 : 5cm×10.5cm

■ 보급방법 : ●신도님이 사찰에 보시하시면 좋습니다.
●사찰, 불교 단체에 보급합니다.
■ 보 급 가 : 1개당 1,000원

감로기획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7